

제 11 호

연중 제 6 주일
(공현 후 제6주일)

1973. 2. 11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강론】

정신적인 나병 환자

김 영 일 신부

옛날부터 나병 환자의 생활을 살펴 보면 일반인들과 격리된 생활이었으며 사회에서 버림받고 경원시되는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나병 환자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라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환자가 신비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교회의 대표자인 사제에게 보이라고 명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도 사고하는 방식이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지니면서 그 신앙의 소유자들끼리의 공동체를 이루는 단체에서 이탈 된다는 거 혹은 이기적이며 개인주의 정신에서 탈피치 못하는 성격들이 바로 사회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나병환자들과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나 환자의 초기 발견은 바로 피부의 반점이나 부스럼의 상처가 쉽게 치료되지 않음을 이야기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나환자의 초기 발견은 바로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 생활 방식을 바라보면 그들은 교회가 무엇을 하거나 어떠한 결의를 했든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물에 술탄듯 술에 몰탄듯 흐리멍덩한 이른바 예수께서 지적하신 「넋지도 뜨겁지도 아닌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된 것입니다.

무관심한 사람의 입에서는 언제나 「나」하나, 숨은 빠져도 하는 식의 연속이며, 신앙 생활에 있어서 지극히 소극적이고 냉담한 사람들입니다. 예를들면 「반회합」시 출석해 보면 「나하나」 빠졌다고 어떠한 소 교회의 공동체를 무시하는 자기 신앙에 어떠한 반점이 생긴 줄을 모르는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의 결의를 무시하거나 이기적이며 개인주의적이고 독선적인 행동의 소유자들은 흔히 위선과 가식 속에서 자신의 흉한 결점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현 누더기를 입었어도 빈곤을 모르는 「유식한 바보」들이 현대인의 나병입니다.

공자님은 하늘에 죄를 지으면 용서 받을 길이 없다(獲罪於天無所禱已)고 했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지면 마음의 하늘도 어두어 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적극적인 삶,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뜻과 뜻을 아는 이해, 이웃을 돕는 사랑의 베품 등은 건강한 정신을 낳는 신앙의 기초 지식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속에서 나병 환자의 모범적 신앙 생활에 경의를 금치 못합니다. 그들이 비록 사회와 가정에서 버림받고 소외되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의 적극적 참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감동케 했던 것입니다. 나는 혹시 신앙과 정신에 있어 나환자는 아닌지? 환자였다면 마음의 문은 활짝열고 교회 공동체의 머리아신 그리스도께 문둥병의 낙인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해 주시도록 기구 합시다.

※ 이 주일의 미사 ※

□**입당송** 주여, 내 몸을 막아주는 큰 바위, 나를 살리는 문은 성채되소서. 내 바위, 내 성채는 당신이시니, 당신의 이름으로 날 이끌어 데려가 주소서.

□**독서** (고린토 전서 10:31~11:1; 성서 p388)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창계송** 복되다, 그 죄 사하여지고 그 허물 씻어진 이여, 주께서 닦을 아니 돌리시고,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여 복되도다. ◎당신은 내 피난처이시니, 구원의 기쁨으로 나를 귀감아 주시리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큰 예언자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느님 당신 백성을 찾아 주셨도다.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40~45, 성서 p.77)

나병을 씻고 깨끗해졌다.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남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주여, 당신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감사히 여기며 즐겁게 하루 하루를 이어가게 하소서, ◎

3. 사랑하오신 주여, 저희로 하여금 남의 허물을 들추어 내기 보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피하게 하소서. ◎

4. 주여, 열심으로 기도드리며 보람된 크리스찬 생활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

5. 주여, 당신의 자녀된 우리로서 말보다는 실천으로서 당신을 널리 증거하게 하소서, ◎

맺음 기도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여, 항상 자신을 반성하고, 주님의 교훈을 명상하는 중에 당신과 저와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시옵고 당신께 대한 사랑이 날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송**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으니, 그를 보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 이 주간의 성경 ※

- 12(월) 독서(로마서 1:1-7, 성서 p.337)
복음(마르코 8:11-13, 성서 p.93)
- 13(화) 독서(로마서 1:8-15, 성서 p.337)
복음(마르코 8:14-21, 성서 p.94)
- 14(수) 독서(로마서 1:16-17, 성서 p.338)
복음(마르코 8:22-26, 성서 p.94)
- 15(목) 독서(로마서 1:18-25, 성서 p.338)
복음(마르코 8:27-33, 성서 p.95)
- 16(금) 독서(로마서 1:26-32, 성서 p.339)
복음(마르코 8:34-38, 성서 p.95)
- 17(토) 독서(로마서 2:1-5, 성서 p.339)
복음(마르코 9:1-12, 성서 p.95)

□ 논 단 □

가톨릭과 학생운동

권진영



「가톨릭 학생운동」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에 익은 말이다. 그러나 한발자욱 앞서 이것을 좀더 알아보고 보살피려고 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가톨릭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톨릭 학생운동」은 해마다 침체일로에 있고 학생들은 점점 교회에서 멀어져간다고한다. 과연 왜 그럴까? 해가 거듭될수록 모든 것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유독이 우리 학생운동만이 침체하고 있는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친구님 사업의 초석이 되었던 학생운동이 침체일로에 있는 점은 정말 우리 교회로 보아서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우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흔히 우리 교회를 가리켜 매우 「보수적」이라고들 말한다. 이말은 역시 내가 생각해 보아도 매우 타당한 말이라고 느껴진다. 물론 보수적이라는 말을 나쁘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이 「보수적」이라는 말과 「가톨릭 학생운동」과를 연관시켜 우리 학생운동의 침체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학생들이란, 아니 좀더 법위를 넓혀, 젊은이들이란 항상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하며 그러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좋아한다. 여기에 가톨릭의 보수성은 그들의 진보성과 상반되어 이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결국 학생운동이 침체에 놓여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단체들 가운데 프로테스탄트 계통의 활발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그들과 우리의 활동에는 서로의 특이성과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활동이 침체해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들의 단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그들 행동의 적극성과 진취성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역사가 유구하면 그 나름대로의 전통과 체제가 선다. 그러나 반면 무사안일과 소극적이 되기도 쉽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가톨릭 학생들은 이점을 경계하며 우리 교회의 보수성을 개선해 힘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누구보다도 앞장서 정진해야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나는 먼저 우리 전주지구 학생들에게 제의 하고 싶다. 올해에는 좀더 새로운 계획과 의욕으로 각자가 좀더 적극적인 참여 정신으로 더욱 참신하고 생기에 찬 학생운동을 우리 교장에서 부터 일으켜보자고. 그리고 어른들께도 부탁 드리고 싶다. 내일의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의 운동에 좀더 적극적이고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십사고.

〈노충동 학생회장, 전주공고 2년〉

□ 양지쪽 □



비 단 구 두

엊그제 후기 고등학교 입시 감독을 했었다. 내가 봉직하고 있는 학교만도 997명이나 낙방의 고배를 마셔야 하는 씁쓸함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전주에서 3,600여명 전국적으로는 무려 12만명이 비통에 찬 모습으로 한해를 보낼 것을 생각하면 우울해지지 아니할 수 없다. 덜썩 큰 아이들을 걱정해서 교문 밖에서 떨고 서있는 부모님들의 심정을 십이분 이해하고 남음이 있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지만, 아이적에는 어른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게 상해인 모양이다. 내 경험으로도, 어찌 그리도 어른들의 말씀이 귀찮게만 들렸던지, 어찌서 어른들은 그렇게도 아이들의 심정을 몰라주시는지 하는 생각만이 머리속에 항상 그득 했었다. 지금은 그때의 내 생각이 항상 옳지는 않았다고 여겨진다.

언제부터인가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가 그리도 좋게 받아 드려지는 것이지 모르겠다. 어떤 때는 나도 잘못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잘 하라고 골잘 이야기 한다. 그러다가는 불쑥 그 노래가 부르고 싶어진다.

뜬부기는 눈에서 울고 빠꾸기는 숲에서 울어제칠때 서울 길을 나서던 오빠가 비단 구두 사오마고 약속한채 떠나서는 소식도 없다는 가삿말이 내 마음에 주는 교훈이 컸다. 비단 구두 사오겠다던 오빠만을 기다리는 어린 누이의 심정이 오죽 할 것인가? 어린 마음에 상처를 남긴 그 오빠는 분명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물론 오빠의 잘못된 사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런 오빠는 아닌지 항상 생각해가며 사는 태도는 우리들의 내일을 밝게 약속해 줄 것이다. 내 부모님이, 내 온사가, 나를 지켜주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노래의 누이동생인 것이다.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 그분들을 실망시켜 드린 적이 얼마나 많은가? 매정한 오빠 노릇은 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경쟁 사회에서는 조금만 마음을 놓고 있어도 뒤떨어질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질수할 수도 있다

문제는 실망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리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어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노력하는 일이 좋은 오빠 노릇을 하는 일일 것이다. (갑)

◎ 알 림 ◎

사정에 의하여 <교리 교실>을 잠시 쉬고 <논단>을 실립니다.

~편 집 실~

※ 개업안내 ※

중앙 가방 센터

〈여행구 핸드백 학생가방〉 도산매

교우에게 특별 할인

중앙성당 상가 노벨제과 옆
방벨라도 (용석)

최 시 관 집

장의차 · 꽃상여 · 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 교우들에게 특별 영가 봉사 ★

최 병 화(그레고리오)

전주 남부 시장 B동 87호(전화 ② 6691 교환85번)

* 대화의 광장 *

● 잔디밭 ●

의지와 결실



김 원 겹

3401 3408 3414 3419.....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는 모태학 합격자 번호다. 걸던 걸음을 멈추고 스피커 앞에서서 메모해 두었던 친구와 후배들의 번호를 찾아 하나 하나 체크해 나간다. 불안, 초조, 환희의 소용돌이 속에서 환희의 감정으로 바뀐다. 좀 늦게 듣게된 때문에 체크하지 못한 하나의 번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그라미를 그릴 수가 있었다. 순간 누구에게나 감사 드리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심경이었다.

내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이런 감정을 가져보진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내 자신이 합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이 생활해본 나는 그들이 어떤 환경조건하에서 어찌까지 책장을 넘겼는지를 알고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같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그들에게 무어라 말했는가. 「좌절감에 사로 잡히지 말자」 「나를 이렇게 공부하게끔 해주신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내 주위사람들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아직은 바르지 못한 이 사회, 불쌍한 우리 민족, 부모형제를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 그러나 나의 이 조언보다도 더 감동을 일으킨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데서 그들은 어린 양처럼 순진했고 젊은 독수리와 같은 힘과 용기를 얻어 「운」이란 것을 버리고 오직 「하만 된다」 「믿는데로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한 보람일 것이다.

끝으로 이번 입시에 응시했던 모든 친구와 후배들에게 「수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는 인사를 전합니다.

1973. 1. 29

(중앙성당 대학생회 부회장, 시릴로)

새결음의 기도



정 일 량

그 옛날 골고타의 언덕에서 만민의 죄를 기워잡으시기 위해 창으로 찢으신 성심은 오늘도 역시 우리의 패덕한 죄를 대신해서 선혈을 흘리시고 계신다.

개개인의 죄는 물론이요, 원죄의 아픔을 앓고 있는 인류 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불의와 부정으로 인해서도, 포악한 위정자의 암정에 신음하는 민족들을 위해, 악마의 이데오르기로 인해 인간성을 빼앗긴 인간 가족을 위해, 굶주림과 희망을 잃은 무수한 가엾은 군중을 위해, 그리고 사치와 배륵의 쾌락에서 돌아 나는 독버섯을 한탄하 시면서도 선혈을 흘리신다.

암흑 속에서 빛을 찾아 해매는 사람들의 외침은 오늘도 지구상에 그칠새 없이 배아리쳐 울리지만 그들에게 마스한 손길을 펼쳐줄 「착한 사마리아인」은 드물다.

교회는 뜨거운 예수 성심의 「불가마」를 대신해서 이러한 온갖 부조리와 부정과 불의, 그리고 그릇된 권력의 남용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 완강히 저항하고 나서는 인류의 양심을 대변한다. 그리고 주님의 성심은 우리 교회와 함께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계속 배반당하며 억압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 하신다. 우리는 이걸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순 없다. 우리는 저 순교자들의 피흘림을 다 시금 되새겨 볼 필요성을 가진다. 우리는 이 모든 부조리와 부정, 그리고 불의가 지구상에서 말살되도록 우리는 보다 더 사랑의 복음을 뜨거운 열정으로 전해야만 하겠다.

「저 주님의 성심처럼」 정의와 사랑의 그릇이신 예수성심이며, 새해에 바치는 이 기도를 들어 주소서.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시몬, 전주고등학교 2년, 복자성당)

주 보 보 내 기 독 지 가 모 집 (연 락 처 ② 3 9 9 8)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②3498)

- 12(월) 교리 교실~제 2기, 박신부 지도
- 13(화) 젊은이의 광장
외국 문화 교실(영어)
- 15(목) 외국 문화 교실(불어)
- 16(금) 여성 교실 (오후 2시)
교리 교실~제 1기, 문신부 지도

※ 젊은이의 광장

- 성경은 참으로 기쁜 소식인가?
(오후 8:00-8:40 유장훈 신부 지도)
- 진진한 노래와 즐거운 게임으로 젊음을 보람차게
(오후 8:50-9:30 레크레이션 교실 ※ 요일변경)

※근하 신념※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전주시 교사동 1가 오거리동 동아서관앞 전화 ②6094

※근하 신념※

동남샤프 TV 및 스토-브 전주대리점

전주극장 입구 ②5504

여 요 셉(운창)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중앙)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준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사제관)
2. 꾸리아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강당)
3. 학생 예비자 교리
주일~오전 9시, 수·토~오후 7시
4. 사제 양성 후원비 적금 사무 개시
신용조합에서 적금 업무를 시작했사오니 불입하시기 바람
□지난 주일 봉헌금 32,562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합승천 사도 회장 이태영

1. 노송 신용조합 월례회 (2월 11일 10시 미사후)
2. 본당 부녀회 월례회 (2월 18일)
3. 본당 교우 피정 (2월 26~28일)
 - ① 장 소 : 광주 피정의집
 - ② 경 비 : 3,500원 (교통비, 식비 포함)
 - ③ 인 원 : 40명
 - ④ 2월 18일까지 접수 요망
 - ⑤ 현재 20명 접수돼 있음
 □지난 주일 봉헌금 13,395원
학생회 봉헌금 940원 감사합니다.
※ 주일학교 학생 봉헌금은 토요일 미사에 별도 봉헌 바랍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택기 사도 회장 송영기

1. 사도회 확대 회의 (오늘 공식 미사후)
사도회 임원, 구역·공소회장단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2. 신용 조합 임원회 (2월 17일)
3. 신용 조합 월례회 (2월 18일 공식 미사후)
4. 피정 신청 마감 (2월 18일까지)
신청서는 본당 사무실에서 교부합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6,089원 감사합니다.

사제양성 후원 기금 협조자

- 복자 누계 175,000원
전동 누계 650,000원
전동 김용욱 정인찬(각5만원) 풍남동 이상현(5만원)
교동 1가 이귀남(5만원) 서완산동 (10만원)
- 중앙 누계 2,116,000원
진북 1구 김정기(5만원) 서송석(1만원)
김금희(7,200원) 박봉익(7천원)
진북 2구 박해근(2만원) 최순애(5천원)
경원동 김유순(5천원)

원 아 모 집

1. 대상 : 만5~6세 남녀 어린이
 2. 모집인원 : 50명
 3. 원서교부기간 : 2월 1일~2월 20일 까지
 4. 원서마감 : 2월 1일~2월 28일 "
- 자세한 내용은 직접 본원에 문의 바람
전화 ㉠ 8347

전주성심유치원 (전동성당 내)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2월 11일)
2. 교무금 납부 요망
교회 살림살이에 모든 신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14,556원
지난 주 성미 (3말 5되 5홉, 현금 200원)
누계 89말 1되 5홉, 현금 20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박낙철

1. 반 지도 위원 재 편성
 1. 육낙철 조상열 (4, 6반)
 2. 최상익 이겨영 (7, 8반)
 3. 이승우 박기홍 (16반)
 4. 한형수 김순태 (15반)
 5. 김한기 정희진 (1, 2반)
 6. 박인식 이준 (13반)
 7. 박종갑 이양환 (9, 10반)
 8. 김재열 진판식 (3, 17반)
 9. 손수우 신금남(12반)
 10. 강순우 한을순 이영숙 (11반)
 ※ 각반 지도 위원은 반드시 반회에 참석, 사도 월례회시 반회 사항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11,137원
지난 주일 교무금 16,30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1. 평신도 주일 (매주 둘째주일)
오늘은 평신도 강론(강사:송재진 부회장)날입니다.
2. 애령회 특별 헌금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3. 자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사제관)
4. 신용 조합 월례회 (2월 14일 밤 7시반)
가입희망자도 많이 참석하시기 바람 (장소:유치원)
5. 후기 대학 수험생을 위한 미사 (2월 13일 6시)
6. 사제 양성 후원 사업에 적극 참여 합시다.
□지난 주일 봉헌금 31,601원
지난 주간 성미(1말, 현금 600원)
누계 성미 12말, 현금 4,550원 감사합니다.

초 봉헌자

중앙 전주 교회

- 이복석(50본) 이두만(17본) 원현식, 정주복, 허미자(각 16본) 강재희(10본) 강금순, 강병임, 강복레, 김복레, 김점순, 김진주, 서정태, 이남순, 이명구, 이중순, 정만덕(각 6본)
강수원, 김귀임, 김봉순, 김세시리아, 김숙자, 김유순, 김지순, 명연호, 박복순, 백옥임, 서기모, 송순동, 송순율, 오순례, 은백순, 이수산나, 이요안나, 이정일, 장외선, 정복순, 정복춘, 조경영, 최성님, 최종선(각 3본) 감사합니다.